

새로 발견된 『麻疹彙成』 이본 연구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朴薰平*

A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Version of the *Majinhwiseong*

Park Hun-pyeong*

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nalyzes the new *Majinhwiseong*(麻疹彙成) manuscript discovered in Jeonju. The *Majinhwiseong* is a medical book specializing in measles co-authored in 1798 by Lee, Won-pung and three doctors from a middle class family. Until recently, the Handok (Korean-German) Medicine Museum copy was known to be the only existing version, but a new manuscript was recently discovered.

Methods : The author, bibliography, organization, cited literature, and content of the book were studied. The contents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copy and other manuscripts were compared then reviewed.

Results : 1. The book shows that middle class workers in the late 19th century were able to collabor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ir craft and form strong bonds. 2. The book was being prepared for publication in Pyeongan Gamyong in December 1798, but failed to be published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Pyeongan-do governor. 3. For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is book,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andok Medicine Museum edition and the newly discovered manuscript (Jeonju edition) together.

Conclusions : The two editions are of a different lineage. The Jeonju edition is overall more specific, while some parts are more detailed in the Handok edition. In conclusion, the *Majinhwiseong* is a book that was written by middle class doctors of late 18th century whose clinical experience was combined with Chinese medical theories. The book was specifically targeted to professional medical audiences.

Key words : Majinhwiseong, Lee, Wonpung, measles, Ma, Zhiqi(馬之騏)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un-pyeong.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el: 061-330-3525, E-mail: lillipute@dsu.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본 원고는 2022년 10월 6일 제35회 한국역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Received(October 20, 2022), Revised(October 27, 2022), Accepted(October 27,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조선 후기 麻疹 치료는 18세기 후반 正祖대에 이르러 조선 의사들이 누적해 온 임상경험과 중국의 학설을 종합하여 반영한 학문적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 시기 대표적인 성과가 1798년 완성된 丁若鏞의 『麻科會通』이었다. 이외에도 朴尙敦의 『疹疫方』(1786년), 傳 申晦의 『紅疹新監』 등이 있다.¹⁾ 『麻科會通』과 같은 해(1798년)에 완성된 『麻疹集成』은 2권 1책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과 저자가 議藥同參醫를 지낸 중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마진휘성』에 대한 소개는 미키 사카에(三木 榮)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고,²⁾ 이후 한국 학자들에 의하여 책의 저자와 서문, 목차 등 개관적인 소개가 학계에 이루어졌다.³⁾ 최근 『마진휘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에서 『마진휘성』은 “오로지 마진에만 초점을 둔 마진 의학 전문 저작”이자, “정부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의서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편찬한 사찬의서”로 평가되었다.⁴⁾

선행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마진휘성』은 필사본으로 미키 사카에 소장본, 김두중 소장본,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한독본)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김두중 소장본과 한독본은 동일본으로, 김두중이 자신의 소장본을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 한독본은 현재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져 왔

다.⁶⁾

최근 기준에 알려지지 않은 『마진휘성』 필사본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⁷⁾ 이 필사본은 기준에 학계에 알려진 한독본과는 별개의 책이다. 이 필사본을 본고를 통하여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책의 저자, 서지, 편제, 인용 문헌, 내용 등을 고찰하려 한다. 이하 새로 발견된 『마진휘성』 필사본은 한독본과 구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전주본’이라 명명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18세기 말 조선이 도달한 홍역 치료의 성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서지와 편제

1) 형태 서지 및 저자

『마진휘성』 전주본은 3가닥 紙捻으로 製冊되었으나, 不分卷 필사본 1책으로 책의 앞표지는 탈락되어 일부만 있다. 남아 있는 뒤표지로 볼 때 본문과 같이 종이 1장 겹장에 불과하다. 책의 크기는 19 × 28cm이다. 겹장 31장(62면) 분량으로 필사는 12行 不定字로 이루어졌다. 본문 첫 면에 “麻疹集成卷之”라는 표제가 있어서 이 책이 『마진휘성』의 필사본임이 확인된다(사진 1). 참고로 한독본은 책의 크기가 18.3 × 24.4cm이며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어⁸⁾ 이번에 발견된 초본과는 별개의 것이다. 전주본은 한독본에 비하여 한 면당 글자 수가 많아 전체 분량은 적다. 한독본은 전주본에 해당하는 권2만 53장(106면)에 달한다. 또한 본문 기술에 있어 한독본은 관심 부위의 상단에 해당 항목이 표시되어있다(사진 2).⁹⁾

1) 미키 사카에는 『麻科會通』을 마진서의 白眉라 평하였다. 朴尙敦의 『疹疫方』은 1786년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왕명에 의해 각 도에서 올린 경험방 중 채택된 책이다. 傳 申晦의 『紅疹新監』은 숙종 때 의약동참의원 柳常의 『柳下新方』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박훈평, 조선 홍역을 읽다. 서울. 민속원. 2018, pp.34-54.
2) 三木 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出版. 1991, p.229.
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34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 434-439.
4) 오재근. 조선 의원 이원종의 마진 의서 마진휘성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3) pp.53-54. <http://doi.org/10.14369/jkmc.2022.35.3.041>.
5) 책에 수록된 본문 첫 면 이미지가 동일하다. 김두중. 한국 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34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485.

6)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162.
7) 개인 소장가가 소장 중이다. 이 필사본의 원소장자는 미상이나, 현 소장자는 고서 경매를 통하여 입수하였다고 한다.
8)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 437.
9) 한독본 이미지는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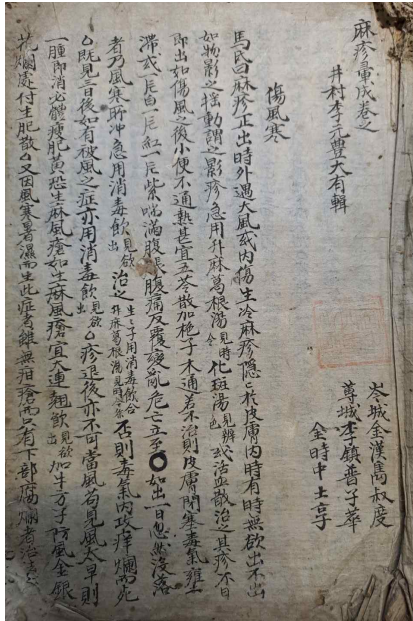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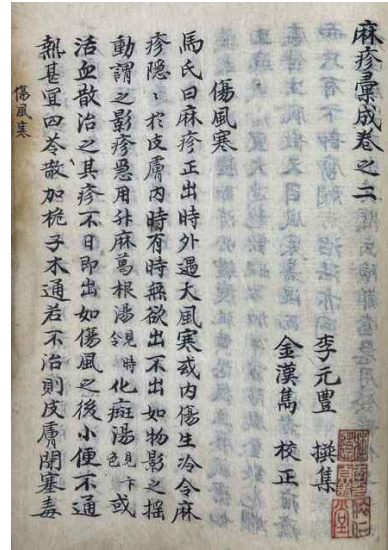


사진 1. 전주본 본문 첫 면



그런데 한독본이 상하 2권 1책본인 반면, 전주본은 전체 2권 중 下卷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다. 그런데 전주본이 처음부터 2권 2책으로 필사되었는지, 상권이 망실되어 하권만 필사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필사자는 이 책이 2권 중의 하권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권으로 이루어진 별책이 같이 필사되었었다면, 표제가 지금 처럼 “卷之”가 아닌 “卷之下”나 “卷之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본과 달리 한독본의 본문 첫 면을 보면 “麻疹彙成卷之一”과 “麻疹彙成卷之二”로 되어있다(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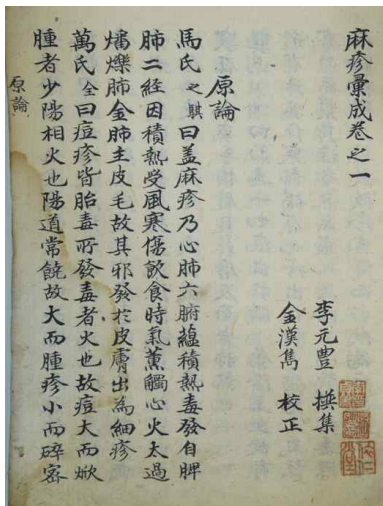


사진 2. 한독본 권지일과 권지이
 본문 첫 면

한독본에 실린 李元豐이 쓴 述文의 내용에 “乃與二三業者”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원풍 개인의 저작은 아니며, 이원풍을 중심으로 業醫 몇 사람이 함께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다.¹⁰⁾ 한독본의 권지일과 권지이 본문 첫 면에 “이원풍 찬집 김한준 교정[李元豐 撰集, 金漢雋 校正]”이라 하였고(사진 2), 전주본 본문 첫 면에는 “정촌 이원풍 대유가 모음. 금성 김한준 숙경, 순성 이진보 자화, 김시중 사형[井村李元豐大有輯, 尊城金漢雋叔度, 尊城李鎮普子華, 金時中土亨]”이라 더 상세하게 기록되

10)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 436.

었다(사진 1). 이를 종합하면 『마진휘성』 저술에 참여한 이는 총 4명으로, 이원풍을 중심으로 다른 3명이 참여하였다.¹¹⁾ 물론 이원풍이 다른 3명에 비하여 이 책의 저술에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이원풍은 본관이 井邑, 자가 聖章, 大有이다. 그는 1759년(영조 35) 6월 1일 사역원 판관 李臺三의 아들로 태어나 사역원 주부 李宗憲의 양자로 갔으며 1828년(순조 28) 1월 21일卒하였다. 전주본에서 언급된 “井村”은 본관 정읍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집안 전통에 따라 1777년(정조 1) 증광서 역과에 漢學으로 급제하여 역관이 되었는데 1809년(순조 9) 의약동참의가 되고(사진 3)¹²⁾ 1822년(순조 22)에 正憲大夫(정2품 上階)의 官階까지 올랐다.¹³⁾ 의약동참의가 되기 전인 1804년(순조 4)에 “醫員”으로 언급되는 등 이전부터 의사로서 활동하였다.¹⁴⁾ 耳溪 洪良浩(1724-1802)이 쓴 『마진휘성』 서문에도 “소아병을 잘 치료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¹⁵⁾ 하였으니, 이원풍은 책의 저술 시기인 1798년 이전부터 의사로서 명성을 얻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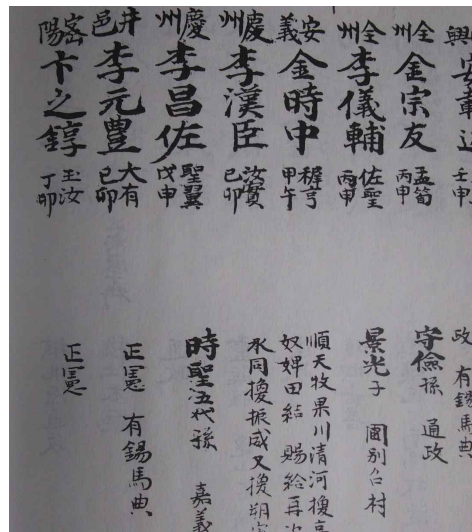


사진 3. 『議藥同參先生案』 ‘이원풍’ 기록

김한준은 본관이 牛峯, 자가 叔度이다. 그는 寫字 官 金恒瑞의 아들로 1774년(영조 50) 11월 2일에 태어나 1848년 8월에 졸하였다. 전주본에서 언급된 “岑城”은 우봉(황해 금천)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1816년(순조 16)에 처음 의약동참의가 되었고 1846년(현종 12)에 崇政大夫(종1품 下階)의 官階까지 올랐다.¹⁷⁾

이진보는 본관이 泰安, 자가 德汝이다. 그는 壽學 別提 李思勗의 독자로 1764년(영조 40) 11월 7일에 태어나 1824년(순조 24) 6월 20일 졸하였다.¹⁸⁾ 그는 집안 전통에 따라 1780년(정조 4) 주학 취재에 입격하였다.¹⁹⁾ 이진보는 『마진휘성』 외의 자료에서는 醫人으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은 없다. 초본의 “蕙城”은 태안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玄啓淳(1738-1786)으로 영조, 정조대에 내의로서

11) 오재근은 한독본만 참조하였는데, 한독본 본문에는 ‘찬집’과 ‘교정’만 기록되었으므로, 이원풍 외의 서문에서 언급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전주본은 찬집과 교정 등의 설명 없이 4명을 기록하였다.

12) 『의약동참선생안』의 이미지는 이우성 편. 창진집 외 1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528.

13)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343.

14) 『承政院日記』 1804년(순조 4) 9월 18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15) 홍양호 저. 서한석 역. 이계집 5.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p.88. 홍양호의 서문은 한독본에 수록되어있으며, 홍양호의 문집인 『耳溪集』에도 수록되었다. 홍양호는 풍산홍씨로 한성부우윤, 홍문관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16) 장서각 소장 『洪珍新方』(1802년 이후 저술)에도 이원풍의 처방이 수록되어있다. 홍역 치료로서 이원풍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장서각 국학자료연구실.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p.302-303.

17)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p.129-130.

18) 『태안이씨세보 무술보 권3』, p.54. 인제대학교. 디지털 족보도서관. [cited May 25]; Available from: <http://genealogy.inje.ac.kr>. 『태안이씨세보 무술보』는 2018년에 태안이씨 사맹공과 후손가에서 간행한 사맹공과 파보이다.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 [cited May 25];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

通政大夫(정3품 上階)에 오른 의관이다.²⁰⁾

김시중은 본관이 安義, 자가 稚亨이다. 그는 1774년(영조 50) 金宗漢의 아들로 태어나 혜민서 직장 金載漢의 양자로 갔으며 졸년은 미상이다. 그는 1801년 의약동참의가 되어 1843년(헌종 9)에는 정헌대부까지 올랐다.²¹⁾

이상 저술에 관여한 인물들 4명에 대해 관력과 생몰 시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마진휘성』 저술에 참여한 인물

	이름	관력	생몰
1	이원풍	의약동참의 정헌대부	1759-1828
2	김한준	의약동참의 승정대부	1774-1848
3	이진보	計士	1764-1824
4	김시중	의약동참의 정헌대부	1774-1848

이들 4명의 공통점은 4가지가 있다.

첫째로 모두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이다. 이원풍은 정음이씨 20세로 조선후기 31명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이다.²²⁾ 김한준은 우봉김씨 繼同公派 23세로 조선후기 9명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이다.²³⁾ 이진보는 태안이씨 사맹공파 30세로 조선후기 65명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이다.²⁴⁾ 김시중은 안의김씨 土緣계 7세로 조선후기 26명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 출신이다.²⁵⁾

둘째로 모두 醫科 출신이 아니다. 이원풍은 역과 출신의 역관이었으며, 김한준은 사자관의 아들로 의

과 출신이 아니다. 이진보는 주학에 입격한 계사 출신이며 김시중은 軍門藥房 전력은 있으나 역시 의과 출신은 아니다.

셋째로 『마진휘성』 저술 당시 모두 40세 이하의 나이였다. 『마진휘성』 저술 당시 이원풍은 40세로 가장 많고, 이진보는 35세, 김한준과 김시중은 25세였다.

넷째로 『마진휘성』 저술 당시 모두 三醫司²⁶⁾ 소속이 아닌 外方醫였다. 저술 당시 이들이 醫人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원풍, 김한준, 김시중이 내의원에 속한 의약동참의가 되는 것은 저술 이후인 순조 때의 일이며, 동참의로 入屬 당시에도 3명 모두 삼의사 관직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진보는 계사 외에 다른 官歷이 확인되지 않으며, 삼의사에 평생 적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4가지 공통점은 『마진휘성』의 저술된 배경을 이해함에 도움이 된다.

모두가 삼의사에 소속되지 않고 의과 출신도 아닌 외방의였기에 이 책의 집필은 관청의 필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본인들이 의술을 행하면서 생긴 필요에 의해 책을 저술한 것이다.

모두가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이라는 점은 서로가 원래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가계 인물도 아니고, 같은 관청에 속한 前歷도 없다. 그렇다면 당시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직 중인들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원풍처럼 구심점을 행사하는 이가 있다면, 20대 중반의 인물들도 동참하여 함께 공동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들 중 김시중이 1801년 의약동참의가 된 이후, 이원풍과 김한준이 이어서 의약동참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간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저자를 통한 고찰을 소결하자면 『마진휘성』은 19세기 후반의 기술직 중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들의 기술을 담은 결과물을 공동 작업하고,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0)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575.

21)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84.

2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404.

23)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136.

24) 박훈평. 조선 후기 태안이씨 의관 연구. 역사학연구. 2021. 83, p.154. <http://doi.org/10.37924/JSSW.83.5>

25)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137.

26) 삼의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의 삼의사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를 지칭한다.

2) 편제 구성

한독본 『마진휘성』은 서문, 述文, 凡例, 목록, 본문(권1-2)으로 구성되었다.²⁷⁾ 전주본은 권2의 본문만 수록하였다. 서문부터 범례까지는 권1에만 수록된 내용이지만, 목록은 권1과 권2에 권별로 본문 앞에 존재한다. 그런데 전주본에서는 권2의 목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문은 홍양호가 저술하였는데, 한독본을 인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만 소개하였지만²⁸⁾ 그의 문집인 『耳溪集』(1843년 간행)에 재수록되어 있어(사진 4)²⁹⁾ 글 전체를 알 수 있다(부록 1).



사진 4. 『이계집』 수록 ‘마진휘성 서문’

홍양호는 여러 차례 分內醫院 提調를 지냈지만,³⁰⁾ 『마진휘성』을 제외하면 의서에 서문을 남기지 않았다. 홍양호가 마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776년(정조 즉위)에 만아들 홍낙원이 마진으로 요절했던 개인사 때문으로 보인다.³¹⁾

술문은 이원풍이 쓴 글이다. 이원풍의 술문은 내용으로 보아 自序 성격의 글이다(부록 2). 이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가경 3년인 1798년(정조 22)에 저술되었다. 둘째 2년 동안 집필에 소용되었으므로 1796년(정조 20)에 집필이 시작되었다. 셋째 이원풍 개인이 아닌 같은 의업을 하는 두세 사람과 작업을 했다. 넷째 이 책에서 마진 치료에 있어 운기, 형증, 처방이 중시되었다. 앞서 홍양호도 서문에서 이 책의 특성으로 마진을 운기와 형증으로 나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현재 한독본에는 없지만, 이 책의 또 다른 서문이 있다. 바로 『敦巖集』에 수록된 서문이다(부록 3). 『돈암집』은 朴宗慶(1765-1817)의 문집이다. 박종경은 이조판서, 관의금부사를 지냈으며 순조의 외숙이다. 이 서문은 1798년 12월 4일에 쓰였다. 이 서문을 통해서도 이 책의 작업 기간이 2년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평안도 관찰사 민중현이 책을 간행하고자 하였는데 왜 간행되지 못했을까. 그 까닭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민중현은 같은 해 12월 26일 갑작스레 졸하였다.³²⁾ 그래서 『마진휘성』의 간행 또한 갑작스레 중지되었다. 이후 다시 간행은 재개되지 못하였다.³³⁾ 이원풍은 『승정원일기』에서는 慶熙將이 된 1803년 9월에 처음 등장한다.³⁴⁾ 이 글을 보면 1798년에 이원풍은 평안도감영에서 武官으로 종사했다. 이외 본문이 49개의 목임도 확인된다.

32) 『승정원일기』 1798년 12월 28일 기사. “以平安假都事趙厚鏗狀啓, 本道觀察使閔鍾顯今月二十六日卒逝事, 傳于閔昌懌曰, 位至崇品, 而如儒士樣, 朝家之所眷毗之者, 亦在於此, 今聞長逝, 傷盡何言? 弔祭致賻返柩後舉行, 該道伯不可一刻曠任, 卽爲議薦, 今已夜深, 政官待開門牌招, 開政下批.”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33) 오재근은 “실제 인간됐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기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선 후기 책판목록에 관련 내용이 없고, 당시의 정황상 실제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재근. 조선 의원 이원풍의 마진 의서 마진휘성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3), p. 44 <http://doi.org/10.14369/jkmc.2022.35.3.041>.

34) 『승정원일기』 1803년 9월 3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27)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 438-439.

28) 앞 부분을 생각하고 중반 이후의 내용만 수록하였다.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 437.

29) 『이계집』 제5책. 권10. 『이계집』의 이미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

30) 『承政院日記』 1787년(정조 11) 3월 1일 기사, 1793년(정조 17) 1월 9일 기사, 1799년(정조 23) 8월 5일 기사.

31) 홍양호 저. 이상민, 이승현 역. 이계집 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p.239-244.

박종경의 서문은 간행본에 들어갈 서문이었으므로 초고본에는 당연히 없었다. 이 서문이 없는 한독본은 초고본 계열이다. 박종경의 서문 내용은 이번 에 처음 번역 소개된다.³⁵⁾

만약 『마진휘성』이 실제 간행되었다면 어떠한 의의가 있었을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조선에서는 여러 두창 전문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³⁶⁾ 그러나 홍역 전문서는 홍석주가 다산의 『마과회통』의 편제를 바꾸어 1802년에 私撰으로 간행한 『麻方通彙』가 유일하다.³⁷⁾ 『마진휘성』이 1798년에 평안감영에서 간행되었다면 조선 최초의 홍역전문서 간행이자 유일한 官撰 간행본이었을 것이다.

한독본에 수록된 범례는 4가지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첫째 증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그 논자의 이름을 쓰고 치료방만 다른 것은 모씨의 방문이라 쓴다. 둘째 馬씨와 萬씨의 것을 篇 머리에 실었고 『보감』과 속방 등은 일일이 별도로 서술하였다. 셋째, 매 장 밑에 그 증상에 속하는 방과 약을 썼다. 넷째, 약성은 篇 말미에 특별히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중국의가인 馬之騏³⁸⁾와 萬全의 영향이 크며 『보감』과 속방도 인용 문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진휘성』의 이러한 항목 분류는 중국 명대 의가인 馬之騏의 『疹科纂要』의 영향이 크다. 두 문헌은 18항목이 동일하다(표 2).

표 2. 한독본과 『진과찬요』 동일 항목

『마진휘성』 제1권 항목	총수
11. 治症大略 14. 潮熱 15. 汗 16. 渴 17. 譫語	5
제2권 항목	총수
1 傷風寒 2 喘嗽 3 咽痛 4. 諸般夾症 (疫病發斑夾症, 疫病發斑夾症) 5. 嘔吐 6. 腹痛 7. 泄瀉 8. 痢疾 11. 失血 12. 瘡毒 25. 孕婦 30. 水痘	12

조선후기 홍역 전문서들은 일반적으로 총론적인 글을 먼저 제시하고, 마진 증상에 따른 분류, 이후 여러 잡증을 제시하는 순으로 기술되었다. 증상에 따른 분류는 단순히 나타나는 形症으로 구분한 『진과찬요』류와 마진의 전병과정에 따른 시기별로 나눈 『마과회통』 류가 구분된다. 『마진휘성』의 경우 전자 의 경우이다.

2. 전주본과 한독본의 비교

1) 항목 분류

한독본의 본문 항목은 총 49항목으로 제1권에 19항목, 제2권에 30항목이다(표 3). ‘附’로 표기된 항목은 총 6항목으로 제1권에 2항목, 제2권에 4항목이 있다.

그런데 전주본과 한독본의 항목은 차이가 있다(표 3).³⁹⁾ 咽痛과 泄瀉 2항목은 附 항목이 빠져있고, 諸般夾症은 순서가 바뀌었다. 傷食 항목은 食傷으로 바뀌었다. 陽毒 항목의 경우 한독본에는 없다. 그런데 박종경의 서문에서 항목 수가 49개라 하였으므로, 권1에 해당하는 19항목과 합산하여 49항목이 되려면 한독본의 항목 수가 옳다.⁴⁰⁾ 전주본에만 있는 ‘陽毒’인데(사진 5), 서문의 항목 수와 해당 내

35) 박종경의 『마진휘성』 서문은 박훈평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p.44.

36) 『두과회편』(1807년) 『두진정론』(1808년) 『두진회통』(1834년) 『시종통편』(1817년)이 그 사례이다.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9. 77, p.216. <http://doi.org/10.17258/jib.2019..77.213>

37)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p.72.

38) 사진 2의 권지 일 본문을 보면 馬씨 옆에 馬之騏라 細注되어 있다.

39) 밑줄 친 항목이 차이가 있는 항목이다.

40) 박훈평의 이전 연구에서 구 김두중 장본의 권2 항목을 31조로 보았는데 疫病發斑夾症과 傷寒發斑夾症를 별개의 항목으로 본 것이다.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p.45.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마진휘성』을 보면 이 내용은 諸般夾症의 내용에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기술되어 있다.

용으로 볼 때 전주본의 오류이다. 한독본에서는 ‘陽毒’의 내용이 諸般夾症 항목의 처방에 포함되었다. 즉 항목명으로 볼 때 한독본이 전주본에 비하여 더 상세하고 적절하다.

표 3. 한독본과 전주본 항목 비교

제1권 항목	총수
1. 原論 2. 運氣 3. 時令 4. 豫防 5. 辨症 6. 辨形 7. 辨色 8. 脈 9. 辨輕症 10. 死症 11. 治症大略 12. 欲出 13. 已出 14. 消痰 15. 潮熱 (附 諸熱) 16. 汗 17. 渴 18. 譫語 (附 狂亂) 19. 煩燥	19 附 2
제2권 항목	총수
1 傷風寒 2 喘嗽 3 咽痛 (附 失言) 4. 嘔吐 5. 腹痛 6. 泄瀉 (附 吐瀉) 7. 痢疾 8. 吐利 9. 浮腫 10. 失血 11. 瘡毒 (附 孤惑) 12. 蛔蟲 13. 虐疾 14. 大便 (附 二便不通) 15. 小便 16. 傷食 17. 不食 18. 諸般夾症 (疫病發斑夾症, 傷寒發斑夾症) 19. 諸般性症 20. 加痛 21. 癢症 22. 疹後羸瘦 (附 疔瘡) 23. 疹後發搐 24. 疹後癩癩 25. 孕婦 26. 食物 27. 禁忌 28. 用藥賦 29. 藥性 30. 水痘	30 附 4
전주본 항목	총수
1 傷風寒 2 喘嗽 3 咽痛 4. 嘔吐 5. 腹痛 6. 泄瀉 7. 痢疾 8. 吐利 9. 浮腫 10. 失血 11. 瘡毒 (附 孤惑) 12. 蛔蟲 13. 虐疾 14. 大便 (附 二便不通) 15. 小便 16. 食傷 17. 不食 18. 諸般夾症 (疫病發斑夾症, 傷寒發斑夾症) 19. 陽毒 20. 諸般性症 21. 加痛 22. 癢症	31 附 2

23. 疹後羸瘦 (附 疔瘡)	
24. 疹後發搐 25. 疹後癩癩	
26. 孕婦 27. 食物 28. 禁忌	
29. 用藥賦 30. 藥性 31. 水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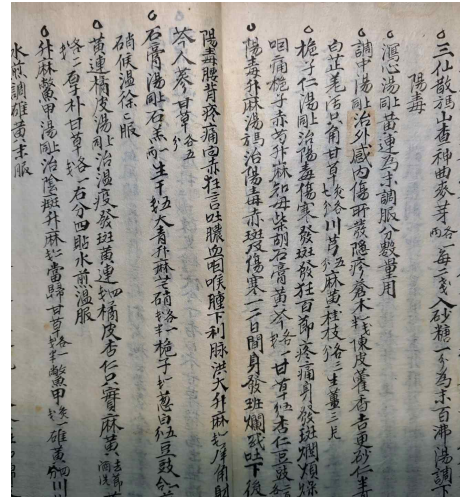


사진 5. 전주본 ‘양독’ 부분

그러나 『마진회성』은 運氣 時令 豫防을 총론 다음으로 두어 독창적인 면모를 보인다. 즉 계절적인 요인과 예방의학을 강조하였다. 또한 잡증 이후에 食物, 禁忌를 두는 것도 이전 의서에 없던 편제이다. 蛔蟲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것은 18세기 이후 조선 홍역 전문서들의 공통점이다.⁴¹⁾

이상의 고찰을 소결하자면 『마진회성』의 항목은 馬之騏를 주로 따르지만, 저자 본인의 생각과 조선의 임상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2) 인용 문헌

홍양호의 서문과 이원풍의 술문, 범례를 통해 보면 총론격인 原論이 중국 명대 학자인 馬之騏와 萬全의 설을 인용하였다.

馬之騏는 중국 邯鄲 출신으로 명칭 교체기에 활

41) 박훈평. 조선 홍역을 읽다. 서울. 민속원. 2018, pp.25-26.

동하였다. 그는 1644년에 『진과찬요』라는 홍역 전문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조선에서 간행된 적이 없이 필사본으로만 보급되었다. 이 책은 숙종조 의약동참의 류상이 저술한 『柳下新方』을 비롯하여, 정약용의 『마과회통』, 저자 미상의 『人父須知』 등 다수의 홍역 관련 저작에서 인용되었다.⁴²⁾ 萬全(1495-1580)은 중국 羅田 출신으로 명대에 兒科로 유명한 의가였다. 1549년에 그가 저술한 『痘疹世醫心法』(12권)은 내용이 비교적 전면적이라 많이 보급되었다.⁴³⁾

한독본 『마진회성』의 인용 문헌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다.⁴⁴⁾ 이에 따르면 병론 중의 인용표기는 俗方 35회, 馬氏(馬之驥)과 萬氏(만전) 27회, 王氏(王肯堂) 18회, 李氏(이천) 13회, 西江月詞 11회, 生生子(孫一圭) 10회, 馮氏(馮兆長) 9회, 張氏(張介賓) 7회, 龔氏(공정형) 4회 순이며, 방제 중의 인용서적은 속방 68회, 마방(마지기) 61회, 만방(만전) 28회, 왕방(왕궁당) 24회, 설방(薛凱) 10회, 寶鑑(동의보감) 9회, 生方(손일규) 9회, 장방(장개빈) 7회, 方論 6회, 이방(이천) 6회 순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들 문헌 중 ‘西江月詞’와 ‘方論’이 무슨 책인지 밝히지 못했다. ‘西江月詞’는 『마과회통』을 통하여 黃廉의 글임이 확인된다. 황렴은 호가 東壁山人으로 西丘 출신의 명대 의가로⁴⁵⁾ 황렴의 저작 중 현존하는 책은 1574(만력 2)년에 저술된 『痘疹全書』 10권과 1579년(만력 7)에 저술된 『秘傳經驗痘疹方』 4권이 전한다.⁴⁶⁾ 정약용의 인용 서목을 보면 ‘西江月詞’는 『두진전서』에서 인용된 것이

다.⁴⁷⁾ ‘方論’이 무슨 책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마진회성』의 인용 문헌을 같은 시기의 『마과회통』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마과회통』의 경우 인용 횟수는 만전(105회), 이현길(87회), 마지기(80회), 장개빈(56회), 翟玉華 36회, 손일규 35회, 왕궁당 27회 순이다.⁴⁸⁾ 『마진회성』 또한 만전, 마지기, 왕궁당을 주로 인용하면서도, 장개빈의 『景岳全書』는 7회에 그쳤다.⁴⁹⁾ 『마과회통』의 ‘我俗篇’에서 俗方 인용은 8회에 그친다.⁵⁰⁾ 물론 이현길 의서가 『마진회성』에서는 속방에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마진회성』은 전반적으로 인용 문헌 중에 속방의 비율이 높다.

전주본과 한독본은 원문상의 차이로 인용 문헌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책의 인용 기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4).⁵¹⁾ 출전 기록의 차이가 있는 곳은 12곳으로 전주본이 9곳, 한독본이 2곳에서 기록되거나 더 적절하다. 즉 출전 기록상으로는 전주본이 한독본에 비하여 더 상세하다. 특히 박진희의 『痘瘡經驗方』 출전 기록은 전주본에서만 1차례 나온다.

42) 『인부수지』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으로 19세기 중후반 작성되었다. 내용 중 홍역 관련해서는 馬之驥의 설을 그대로 전제하였다. 박훈평. 조선 홍역을 읽다. 서울. 민속원. 2018, pp.59-61.
 43) 홍원식, 윤창렬, 김용진. 개정정보판 한중의학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pp.351-352.
 44) 오재근. 조선 의원 이원풍의 마진 의서 마진회성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3), pp.46, 50. <http://doi.org/10.14369/jkmc.2022.35.3.041>.
 45) 『마과회통 권1 서문』 “黃西丘西江月詞”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4. 서울. 사암. 2012. pp.49, 58-61.
 46)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907. 劉時覺. 中國醫籍補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7. pp. 1463-1464.

47) 『마과회통 권1 서문』 “黃西丘西江月詞”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4. 서울. 사암. 2012. p.49.
 48) 서봉덕. 마과회통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p.62. 서봉덕은 이원풍을 인용한 횟수가 9회라 하였으나 『마과회통』 원문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49) 오재근. 조선 의원 이원풍의 마진 의서 마진회성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3), pp.46, 50. <http://doi.org/10.14369/jkmc.2022.35.3.041>.
 50) 서봉덕. 마과회통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p.64. 오재근도 이원풍이 “조선 의가들의 임상 사례에 관심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과회통』에서 “기존 의가들의 의서와 의학 이론에 대한 평론을 수록”한 반면 이원풍은 “별도의 편제를 편성하지 않고 조선 의가는 조경준과 속방을 소개한”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오재근. 마진반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2022. 40 125. 그러나 藥性같은 항목은 조선 고유의 내용이며, 이현길의 처방도 다수 인용되었다. 속방의 분량도 『마과회통』에 비하여 전체 항목에서 절반 정도에서 고르게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정약용에 비하여 이원풍이 더욱 조선의가의 임상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1) 표에서 ‘출전 없음’은 출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고 ‘문장 없음’은 관련 내용 전체가 없는 것이다.

표 4. 한독본 권2와 전주본의 인용 기록 차이

	항목	문장	한독본	전주본	비고
1	1.傷風寒	升麻消毒飲	俗方 出柳方	출전 없음	한 o
2		玉鎖匙散	문장 없음	王方	전 o
3		甘吉牛方湯		方論	전 o
4	3 咽痛	十神散		方論	전 o
5		射干鼠粘子湯		俗方	전 o
6		王氏雙解散		俗方	전 o
7	7.痢疾	疹子若兼	西江月詞	출전 없음	한 o
8	8.吐利	檇白丸	문장 없음	及幼	전 o
9	11.瘡毒	馬鳴散	馬方	萬方	전 o
10.	12.蛔蟲	擦牙散	俗方	俗方 皆方出朴 鎮喜	전 o
11.	18.諸般夾症	其治療之法	출전 없음	薛方	전 o
12.	25.孕婦	金櫃當歸飲	俗方	馬方	-

마지막으로 『마과회통』은 마진을 포함한 마과 질환 전반을 다루려 한 반면에, 『마진회성』은 마진 단일 질환에 더 초점을 두었다.⁵²⁾

이상의 논의를 소결하자면 저자들이 마진에 대한 조선의 치료 경험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이 실제 마진 치료에 종사하던 의인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마진회성』은 이 책의 독자층을 철저하게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설정하여 저술된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속방을 수록하기는 하였으나 단방약은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단방 관련된 부분은 ‘食物’에서만 언급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치료의

52) 오재근. 마진반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2022. 40, p.121.

보조적인 수단이다. 또한 침의가 아닌 藥醫를 대상으로 한 저술이다. 책에서는 침구 처방이 단 1례도 나오지 않는다.⁵³⁾

또한 俗方 등 조선인의 경험을 많이 수록하였을 뿐이라 ‘藥性’ 항목을 보면 당시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 잘 활용되던 狗糞, 人中黃, 野人乾, 婦人月經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속방의 비중이 높은 특징은 『마진회성』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임상 경험에 자부심을 가졌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원풍 등이 의학관료 신분이 아닌 외방의로서 의술 실력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3) 본문 내용 비교

앞에서 논한 항목명과 출전을 제외한 한독본과 전주본의 내용상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5).⁵⁴⁾ 단순 이체자와 일부 문장이나 글자 순서의 차이는 제외하였다.

표 5. 한독본 권2와 전주본의 주요 내용 차이

	항목	문장	한독	전주	비고
1		馬氏	四苓散	五苓散	한 o
2	1.傷風寒	活血散	증 설명 없음	小便不痛熱 甚症	전 o
3		萬氏	肺葉焦揭	肺葉焦竭	전 o
4	2.喘嗽	未後咳 甚者	문장 없음	문장 있음	전 o

53) 오재근은 “『마과회통』이 처방들을 따로 묶어 만든 반면 『마진회성』은 병증 설명 이후 바로 관련된 방약을 묶은 점이 다르다”하였다. 또한 『마과회통』은 방제들이 수 차례 중복되며 소개된 반면 『마진회성』은 대부분 1회씩만 소개되었다고 분석했다. 오재근. 마진반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2022. 40 126. 이러한 점도 『마진회성』이 독자층을 철저하게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54) 비교에서 한독본이 적절한 경우는 “한 o”으로 전주본이 적절한 경우는 “전 o”으로 하고, 판단유보는 공란으로 두었다.

5		貞元飲	加肉桂	加桂枝 一錢	-
6		玉鎖匙 散			전 0
7		甘吉牛 方湯			전 0
8	3 咽痛	十神散	문장 없음	문장 있음	전 0
9		射干鼠 粘子湯			전 0
10		王氏雙 解散			전 0
11	7. 痢疾	馮氏	문장 있음	문장 없음	한 0
12		張氏			한 0
13	7. 痢疾	初出時	兼喘嗽者	消後痢疾喘 嗽者, 解毒湯見欲 出	전 0
14	8. 吐利	梲白丸	문장없음	문장 있음	전 0
15.	12. 蛔蟲	或以竹 葉	문장 없음	문장 있음	전 0
16.~ 36.	추가	牛黃清 心丸 등 21개처 방	문장 없음	문장 있음	전 0

전주본은 항목명과 출전의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36곳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전주본에만 마지막 水痘 항목 이후로 21개 처방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이들 처방의 주치를 보면 水痘가 적응증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마진회성』의 원문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처방을 제외한 16곳 중에서 전주본은 12곳, 한독본은 3곳에서 더 적절하다. 즉 내용상 전주본이 한독본에 비하여 더 상세하고 적절하다.

이상 한독본과 전주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필사본은 서로 다른 전승 계열이다. 대체적으로 전주본이 더 상세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한독본이 더 상세하다. 예를 들어 전주본이 내용과 출전에 있어서는 더 상세하고, 한독본은 항목명에 있어서는

더 상세하다. 따라서 『마진회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필사본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두 필사본 중 어느 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Ⅲ. 결론

『마진회성』은 1798년에 이원풍과 다른 기술직 중인 가문의 의사 3인이 공동으로 저술한 홍역 전문서이다. 그동안 한독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새로운 필사본이 발견되었다.

본고를 통하여 『마진회성』의 저자, 서지, 편제, 인용문헌, 내용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한독본과 새로 발견된 필사본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19세기 후반의 기술직 중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기술을 담은 결과물을 공동 작업하고,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이 책은 1798년 12월 평안감영에서 간행을 준비 중이었으나 평안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박종경의 서문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이 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독의약 박물관 소장본과 새로 발견된 필사본(전주본)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두 필사본은 서로 다른 전승 계열이다. 대체적으로 전주본이 더 상세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한독본이 더 상세하다.

결론적으로 『마진회성』은 18세기 후반 기술직 중인 의가들이 마진 치료에 대하여 자신들의 임상 경험에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의 의론과 결합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은 독자층을 철저하게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설정하여 저술되었다.

전주본은 한독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일 이 내용이 발굴되어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사의 글

한독본 자료를 입수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대전대학교 오재근 교수님과 한독의약박물관 권옥희 학예 연구사님께 감사드린다.

References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2.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3.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4.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5.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9. 77.
<http://doi.org/10.17258/jib.2019.77.213>
6. 박훈평. 조선 후기 태안이씨 의관 연구. 역사학연구. 2021. 83.
<http://doi.org/10.37924/JSSW.83.5>
7. 서봉덕. 마과회통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8. 오재근. 마진반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2022. 40.
9. 오재근. 조선 의원 이원풍의 마진 의서 마진회성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3).
<http://doi.org/10.14369/jkmc.2022.35.3.041>.
10. 이우성 편. 창진집 外 1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11. 이원풍, 김한중, 이진보, 김시중. 마진회성. 필사지 미상. 1798. 개인 소장.
12. 이원풍, 김한중. 마진회성. 필사지 미상. 1798.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13.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14. 장서각 국학자료연구실.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5.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34. 서울. 사암. 2012.
16. 홍양호 저. 서한석 역. 이계집 5.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17. 홍양호 저. 이성민, 이승현 역. 이계집 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18. 홍원식, 윤창렬, 김용진. 개정증보판 한중의학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19. 三木 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出版. 1991.
20. 劉時覺. 中國醫籍補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7.
21.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
22.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2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cited May 25];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
24. 인제대학교. 디지털 족보도서관.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genealogy.inje.ac.kr>
2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s://db.itkc.or.kr>
26.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May 26];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
2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 [cited May 25];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

부록

1. 『이계집』 수록 홍양호 서문55)

천지의 큰 德을 생이라 한다. 생각컨데 사람의 생이다. 六氣가 바깥에서 치고 七情은 안에서 손상 시킴에 생을 해치지 않음이 없으니, 성인이 일어나 의약으로서 이를 구제하였다. 이에 신농씨가 온갖 풀을 맛보고, 헌원씨가 『소문』을 저술하였다. 이후로 名醫가 계속 이어져 세상을 구하면서 그 법을 전하였다. 그러나 天地가 생겨난 지 오래되었다. 사람이 걸리는 병도 그 종류가 매우 많아 404종에 그치지 않으니, 단지 이전 사람이 효과를 보았던 처방과 치료만으로 살피서는 안 된다.

麻疹 같은 것은 두창과 같은 부류이나 이름이 다르다. 上古 시절에는 없었으므로, 그 치료 처방도 과거의 신비로운 의술에 근본하지 않으며 오직 形症과 運氣만을 살피야 한다.

세상에 의술로 이름난 이는 먼저 그 형증을 살피서, 이에 (마진을) 치료할 수 없음, 치료하기 어려움, 치료하기 쉬움의 조목으로 나눈다. 치료할 수 없음은 대개 斑粒의 많고 적음과 毒氣의 깊고 얕음으로 변별한다.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바탕에는 강약이 있고 시절 運氣의 억제함과 克함이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병에 걸린 초기에 치료와 치료할 수 없는 이치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병을 생각해보니 불행히도 황제 시대 이전에는 없어서, 岐伯과 편작의 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을 논하여 투약함에 있어서 불변할 만큼의 신묘하고 온전함은 못 얻었다.

이원풍군은 소아를 잘 치료하여 세상에 이름이 났다. (그는) 일찍이 마진의 치료방이 예로부터 온전히 갖춘 책이 없어서, 방법을 살피 증명할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옛 의술을 널리 증험하여 要旨를 가져오고, 근세에 경험된 방법을 참고하여 모아서 책을 만들어 ‘마진휘성’이라 이름하였다.

먼저 운기, 다음으로 형증을 논하였는데 범례를 열거하고 조목을 나누니 손바닥을 보듯이 분명하였다. 세상의 병을 살피는 사람이 그 증상을 살펴 알아냄에 어렵지 않고, (치료하기) 어려움과 쉬움을 분별하여 치료에 조리가 있게 하였다. 증상을 널리 구제하는 방법에 크게 功이 있으니, 그 마음 씀이 진실로 부지런하다.

일찍이 듣기로 송나라 嘉定 연간에 태의원에서 『小兒衛生論』 20권을 편찬하였다. 痘疹方과 이 책과 더불어 우연히 맞는 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굳이 구해서 징험하기를 바란다.⁵⁶⁾

2. 이원풍의 『마진휘성』 술문

의술에 책이 있는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헌원과 황제로부터 지금까지 몇 천년 동안 名醫가 사라지고 나오면서 저술을 남겼다. 예를 들어 진월인의 『난경』, 장중경의 『금궤』, 왕숙화의 『맥궤』, 손진인의 『친금방』은 『내경』 속에 감쳐진 뜻을 드러내거나, 음양의 정미함을 천발하여 책에 수록된 것이 매우 많으니, 후학의 보잘 것 없음을 가지고 어찌 감히 그 (책들) 사이에 한마디 말을 보태겠는가.

그러나 마진이란 질환만은 상고 시대로부터 形症脈治의 방법과 맥락을 풀고 나누어 해석하는 학설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전 賢人이 글을 써도 證論만 있고 치료 방법에는 소홀하거나, 形色을 살핌에는 정

56) “天地之大德曰生。惟人之生也。六氣伐其外。七情戕其內。不能無害生者。則聖人有作。乃有醫藥以濟之。於是乎神農氏嘗百草。軒轅氏作素問。自是以降。名醫代出。以救世而傳其法。然天地之生久矣。人之受病。有萬其種。不止四百有四。則不可只按前人已驗之方治之也。至若麻疹者。與痘同族而異名。卽上古所未有者。故其治方。未本於古之神醫。而惟視形症與運氣。世之以醫名世者。先觀其形症。爰有不治難治易治之目。所謂不治者。蓋以斑粒之多寡。毒氣之深淺卜之。然人之生質有堅脆。時之運氣有制克。寧有得病之初。已判治不治之理哉。余則謂是病也。不幸而不出於軒皇之時春秋之前。未經岐伯越人之手。故論症投劑。終未得不易之妙證也。李君元豐。以善治小兒。名於世。嘗恨麻疹之方。古無全書。無以按法而治症。遂博證古醫。提挈要旨。參之以近世已驗之方。哀輯成書。名之曰麻疹彙成。先論運氣。次及形症。列凡分目。瞭然如掌。使世之看病者。不眩於執症。而辨其難易。治有條貫。大有功於普濟衆生之術。其用心誠勤矣。嘗聞宋嘉定間。太醫院纂小兒衛生論二十卷。必有痘疹方。與此書暗合者。君其求而證之。”

55) 홍양호 저. 서한석 역. 이계집 5.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pp.86-89. 서한석의 번역은 일부 참조하였으나 논자가 다시 번역하였다.

밀하지만 운기학에 서투른 자가 氣나 運 한 가지에 만 치우침이 없지 않으니, 병에 임하여 방법을 논하는 즈음에 어쩔지 모르는 실수를 면하기가 어렵다,

내가 일찍이 남몰래 어린아이를 위하여 마진을 치료하는 술기에 대해 말하기를 글로 쓰지 않으면 어렵다 여겨서, 고심하면서 글을 썼다. 뜻이 정밀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았으며, 넓게는 채록하지 않았으나, 이치가 명확하였다. 창졸의 급박한 시간에 어찌 증상에 따라 약을 투여하겠는가.

이에 이 직업(의술)에 종사하는 두세 사람과 더불어 옛 처방을 찾아 모으고. 여러 말들을 널리 채록해서, 중요한 뜻을 뽑았다. 2년여 걸려 한 책을 만들어서 이름 붙이니 『마진회성』이 책이다. 주로 옛 책으로서 서술하면서, 俗方을 참고하였다. 대략 原論과 운기로부터, 出沒⁵⁷⁾ 雜症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편을 이루고 어구를 만들었다. 간략하면서도 뜻이 남음이 없이 상세한데, (글이) 늘어짐이 없었다. 만약 나와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이가 넓혀서 보충한다면 마진 치료를 온전하게 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을 따름이다.

嘉慶 3년 월 일 樂山主人 이원풍 쓰다.⁵⁸⁾

3. 『돈암집』 수록 박종경 서문⁵⁹⁾

57) 김신근의 원문에는 “內沒”로 되어있다.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 436. 그러나 김두종의 글을 보면 “出沒雜病”이라 하였다.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343. 해석상으로도 김두종이 옳은 것으로 추정된다.

58) “醫之有書，其來久矣。奧自軒岐寔至子今，幾千百載。名醫迭出，有著述。如越人之難經，仲景之金匱，王叔和之脈訣，孫真人千金，或發內經之蘊奧，或闡陰陽之精微，載籍極博，以後學之滅裂，豈敢贅一辭，於其間哉。然顧此麻疹一病，上古既無形症脈治之方，條釋分解之說。故前賢之爲書，亦多專於臨證，而忽於治方，工於形色而拙於氣運學者，不無專，此專彼之偏，而臨病論方之際，亦未免眩惑荒亂之失矣。余嘗以是嬰于中窻，以謂治疹之術，非書則難，稽而書，非擇則義不精，采不博則理不明，其何以對症投劑，於倉卒危急之時乎。乃與二三業者，搜輯古方，博採群言，該括要義，二年于茲集一書目之曰，麻疹彙成是書也。專述乎古書，以參之俗方，略始自原論運氣，至內沒雜症，以第編成辭，簡而無遺義詳而不蔓。倘或有與我同志者，擴而充，亦不無少補，於疹之萬一云爾。嘉慶三年月日 樂山主人 李元豐述。”

59) 『돈암집 권6』 『돈암집』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cited May 26]; Available from:

의사는 책[의서]이 없다면 훌륭한 못하고, 책 [의서] 또한 훌륭한 의사가 있는 뒤에야 존재하니, 당시를 밝히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은 六氣의 넘침이 있고, 땅은 五味의 기름을 낳는데, 사람은 그 사이에 있다. 七情으로 인한 손상 이 있어 질병에 걸리게 되면(病) 勢를 반드시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농씨가 百草를 맛보고 나서 의약이 있고, 황제가 경맥을 논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 깨닫게 되어서, 『본초』와 『소문』의 책이 지어졌다. 그 후로 위로는 화타와 편작, 아래로는 유하간, 장자화, 주단계, 이동원의 무리가 있었다. 모두 훌륭한 의사이며 각기 책을 저술하였는데, 유독 마진의 방서는 일찍이 (내가) 보지 못했다. 한나라의 순우의가 비로소 五疹의 치료방을 저술하였는데 마진이 그중 하나이다. 이 책은 수천년을 지나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책이 손상되어서 근거할 것이 없다.

세상의 용렬한 의사들은 오래된 일정한 규칙만을 고수하고 변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처음과 끝은 모방하지만, 핵심은 전혀 알지 못하여 緩急에 마땅함을 잃고 補瀉에 방법을 헛갈려서 사람을 치료함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10중의 절반이다.

하늘의 德이 가장 큰 것이 생이다. 바로 이 술기에 있어 이름난 이가 예를 들어 鄭樞, 허준, 양예수 등의 사람은 우리 동방[조선]에서 나서 여러 방서를 총괄하고 여러 말들을 수집하여 모아서 『寶鑑[동의보감]』 한 책을 이루었다. 그러나 마진 치료의 처방은 빠지고 생략되었으니 정말 애석하다.

이원풍군은 소아를 치료하였으나, 이 질환[마진]에 대한 책은 전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古方을 널리 모아서 2년 동안 열심히 하여 한 편을 만들고 49개의 목표로 모아서 이루었다. 본래의 근원을 궁구하고 탐구하고, 門類를 분명하고 자세히 알아, 그 말이 요점을 얻었고 그 쓰임이 넓다.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道에 도움이 크게 된다.

이 어찌 의술에 있어 훌륭한 뿐더러 마진의 책이 장차 세상을 다시 밝히지 않겠는가. 혹 어떤 사람이

<https://db.itkc.or.kr>. 원문은 논자가 번역하였다.

“醫는 意일 뿐이니 책을 쓰지 않는다.”라 하는데 심히 잘못되었도다.

이군은 關西 지방의 막부에 있어서, 관찰사 閔鍾顯公이 그 책을 보고 없어지지 않게 전하고자 하여 財力을 내어 책판에 새겼으니 또한 성인의 아름다움을 좋게 여김이다.

崇禎 기원후 3년. 무오년 12월 계사일[4일]에 序하다.⁶⁰⁾

60) “夫醫無書則不良，書亦有醫之良者而後，明於當時。傳之後世。何者。天有六氣之淫，地生五味之養，而人於其間，不能無七情之所損，則疾病之來，勢必不免者也。故神農嘗百草有醫藥，黃帝論經脈通問難，本草素問之書作焉。其後上自華扁，下至劉張朱李氏之徒，皆醫之良者，亦各有其書，而獨麻疹之方，曾未見也。漢之世淳于意者，始著五疹治方，麻疹居一，是書也歷屢千載，其來久遠，編殘簡缺，莫有考據。世之庸醫，泥守故常而不知變改，剽竊緒餘而全昧肯綮，緩急失宜，補瀉迷方，以至求活而致死者，十居其半，惟天之德，其大曰生，於是名於是術者，如鄭礎，許浚，楊禮壽諸人，出我東方，該括諸方，哀聚羣言，以成寶鑑一書，治疹之方，猶有所闕略，嗚呼其可惜哉，李君元豐醫於小兒，而普患是書之無全，博採古方，二載勤勤，輯以爲一編，彙成其目有四十九，窮探本源，旁通門類，其言約其用博，於善濟衆生之道，大有助焉，此豈非良於鑿而麻疹之書，將復明於世者耶。人或云醫者言意而不著書，豈不甚謬哉，李君方在關西幕府，觀察使閔公鍾顯見其書，欲不泯而傳之，出財力而鋟梓，亦善成人之美也歟，崇禎紀元後三戊午十二月癸巳序..”